혁신도시 14번째 입주 인터넷진흥원 내일 착공

농촌경제연구원은 7월초
농수산식품평가원 9월 첫삽

내년 16개 기관 이전 완료
기관-대학-기업 발전 기대

14번째 이전 공공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이 12일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에서 신사옥 착공식을 갖는다.

한국인터넷진흥원 나주 신청사는 지하 1층, 지상 8층 규모로 건설된다. 내년 12월 준공되면 509명이 이전한다. 빛가람혁신도시에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13개 공공기관이 이전을 완료한 바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당초 올 2월 착공식을 갖고 올해 말 이전을 끝낼 예정이었으나 1년 연기됐다.

지난 2009년 창립된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인터넷과 정보보호 진흥기관으로, 현재 국가정보보호 기반 구축, 개인정보보호 수준 제고, 차세대 인터넷주소 관리체계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7월 초,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9월 초에 착공할 예정이다. 전남도 혁신도시건설지원단은 내년 하반기에는 이전 예정 16개 기관이 모두 이전을 마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빛가람혁신도시는 지난 2005년 공공기관 이전계획이 발표된 뒤 당시 박광태 광주시장과 박준영 전남지사가 공동으로 혁신도시를 조성하기로 합의, 나주에 둥지를 틀었다. 빛가람혁신도시 착공식은 지난 2007년 11월 열렸다.

이전 발표 후 11년만인 내년 하반기 16개 공공기관이 빛가람혁신도시 내 자리를 잡으면서 공공기관 간, 공공기관과 지역대학 및 기업 간 융·복합에 따른 지역 발전의 획기적 계기가 마련될 전망이다.

한국전력의 에너지밸리를 시작으로 공공기관들의 '지역사업'들도 조만간 가시화될 것으로 광주시와 전남도는 기대하고 있다.

안기홍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은 "이전이 완료되면 이들 공공기관과 지역대학, 지역기업 등이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2단계 사업이 본격화될 것"이라며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공공기관들의 이전 효과가 광주·전남에 광범위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광주전남연구원 2017년 혁신도시 입주

창립 실무협의회 가져
원장은 공개모집키로

광주발전연구원과 전남발전연구원을 합친 광주전남연구원이 오는 2017년 빛가람혁신도시에 입주한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이사회 법인 해산 및 청산과 새로운 법인 창립을 동시에 진행해 통합을 최대한 앞당길 전망이다.

10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가 통합 조례안을 의결한 뒤 처음으로 지난 7일 오후 전남도청에서 광주시 관계자들과 광주전남연구원 창립 실무협의회를 가졌다.

이번 실무협의회에서 광주시와 전남도는 올 하반기 내에 광주전남연구원 창립을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법인 청산 공고 기간이 최소 2개월 이상이어서 청산과 창립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광주전남연구원 창립을 위해서는 각 이사회 해산 결의, 법인 해산, 청산인 선임 및 행정자치부 해산 신고 등 법인 청산 절차와 창립총회, 법인 설립 신청, 행정자치부 법인 신고 등의 창립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이사장은 광주시와 전남도가 각각 같은 수로 추천한 이사 가운데 선임하고, 원장은 법인 설립 후 공개모집하기로 했다. 원장은 중앙정부부처에서 인정할 수 있는 '명망가'로 한다는데 윤장현 광주시장과 이낙연 전남지사가 의견을 모아 장관이나 총리를 지낸 지역출신이 주목을 받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광주전남연구원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기로 해 원장 선임 후 원장이 조직개편을 주도하도록 할 방침이다. 광주발전연구원과 전남발전연구원의 연구위원, 연구원 등 직원은 모두 광주전남연구원이 승계하기로 했다.

나주 산학연 클러스터 내 청사를 마련하기 전까지는 현재 광주발전연구원과 전남발전연구원을 지역본부체계로 운영하고, 원장이 일정기간을 정해 양 본부에서 근무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새 청사 입주 전까지 통합 운영하는데 상당한 추가 예산이 소요되는 등 부작용이 커 이 지사와 윤 시장이 현 체제를 유지하기로 합의했다"며 "연구원 통합과 관련 시·도의 이견이 거의 없어 창립 절차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chadol@

이낙연 지사 투자유치 유럽 방문

이낙연 전남지사가 11일부터 14일까지 2박4일 일정으로 투자 유치 등을 위해 독일과 이탈리아를 방문한다.

이 지사는 이번 방문에서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고도기술을 보유한 세계 굴지의 업체와 도내 기업의 합작 투자를 유도하는 교섭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또 F1경주장 주변에 조성 중인 '삼포 자동차 튜닝밸리' 기업 유치 차원에서 국내 기업인들과 함께 고성능 튜닝기술을 보유한 유럽 기업들을 상대로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투자상담 활동도 함께 전개한다.

/윤현석기자chadol@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전략잠수함 탄도탄 수중시험발사를 참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9일 보도했다. 북한의 전략잠수함 탄도탄이 발사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일보 등 한신협, 美 K라디오에 뉴스 공급

광주일보 등 국내 주요 지방일간지의 뉴스가 북미 교포들에게 실시간으로 전파된다.

광주일보를 비롯한 전국 9개 시·도를 대표하는 신문사로 구성된 한국지방신문협회(회장·송광석)는 지난 8일 수원경인일보 사옥에서 미국 한인방송인 K라디오(K-Radio·AM 1660·사장 성상모)와 교류협력합의서를 체결하고 뉴스 공급 및 취재지원에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뉴욕 퀸즈에 소재한 K라디오는 오전 6시~밤 10시 자체 제작한 콘텐츠로 방송하며 미국 동부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한인방송으로 통한다. 코네티컷, 필라델피아, 뉴저지, 캐나다 밴쿠버 지역까지 뉴스를 송출하고 있다.

성상모 K라디오 사장은 "교포들이 향우회 활동을 매우 활발히 하고 있음에도 그동안 자신의 출신 지역 소식은 정작 접할 수 없었다"며 "이번 협약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지방신문협회는 광주일보·경인일보·강원일보·경남신문·대전일보·매일신문·부산일보·전북일보·제주일보 등 전국 9개 시·도를 대표하는 신문사로 구성돼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北, 전략잠수함 탄도탄 시험 발사 성공

김정은 위원장 참관

북한은 지난 9일 전략잠수함의 탄도탄 수중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북한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이날 "김정은 동지의 직접적인 발기와 세심한 지도 속에 개발완성된 우리 식의 위력한 전략잠수함 탄도탄 수중시험발사가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시험발사를 참관했다. 중앙통신은 시험발사 장소가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라고 밝혔을뿐 구체적인 위치나 시험발사 시점은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중앙통신이 이날 김 제1위원장이 함경남도 중부 동해안의 신포원양수산연합기업소를 방문했다고 보도한 점으로 미뤄 시험발사장이 신포 인근 해역에서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

신포 앞바다에는 북한의 마양도 잠수함 기지가 있으며, 앞서 지난 2월에는 북한이 신포 조선소 인근 해안가에서 잠수함용 탄도미사일(SLBM) 개발 과정으로 추정되는 수직발사관 사출시험을 실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한편 청와대는 북한이 지난 8일 남측 해군 쾌속정들이 최근 북한 영해를 하루 2~3차례 침범했다며 백령도 주변 서해 열점수역에서 해상분계선을 침범할 경우 예고 없이 직접 조준타격하겠다고 경고하고 전략잠수함 탄도탄을 발사한 것과 관련, 9일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오후 소집된 회의에는 상임위원장인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해 청와대 비서실장, 외교·통일·국방장관, 국가정보원장, 안보실 1차장, 외교안보수석 등 상임위 멤버들이 모두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참석자들은 북한의 위협 의도와 추가 위협 가능성 및 실제 무력시위 및 도발 가능성 등을 면밀히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윤상현 특보, 北 김영남에 남북관계 진전 의지 설명

러 전승절 행사서 만나

대통령 특사로 러시아의 제2차 세계대전 전승절 행사에 참석했던 새누리당 윤상현의원(대통령 정무특보)이 모스크바에서 북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만나 남북 관계 개선 문제 등에 대해 얘기를 나눈 것으로 10일(현지시간) 확인됐다.

윤 의원은 이날 모스크바 롯데호텔 숙소에서 "전날 붉은광장에서 펼쳐진 군사퍼레이드 이후 인근 무명용사의 묘에 헌화하는 과정에서 김 상임위원장과 약 5차례 걸쳐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김 상임위원장에게 대통령 특사로 왔다는 소개를 하고 명함을 건넨 뒤 얘기를 나누면서 남북관계의 진전을 위한 한국 정부의 의지와 진정성에 대해 설명했다"면서 "이에 김 상임위원장은 진정성이 모이면 잘 될 것이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여러 국가 정상과 사절들이 함께 무명용사의 묘에서 헌화하기 전과 헌화한 후, 헌화 뒤 단체 기념 촬영을 하러 움직일 때, 사진을 찍는 과정, 그리고 사진을 찍은 후 등 약 5차례에 걸쳐 김 상임위원장과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헌화를 하고 사진 촬영을 하는 전체 과정에서 줄곧 김 상임위원장과 옆에 있거나 앞 뒤로 가까운 거리에 서 있어 자연스럽게 얘기를 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